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기관 선정

보건복지부는 의-한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진 의료기관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 13개 국공립 의료기관 지정 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하여 총 45개 기관이 확대 지정됐다.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은 의-한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오는 27일부터 1년간 시행되는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 기관별 협진 매뉴얼 필수 구비 △협진 상황 모니터링 △협진 의사 및 한의사 사전협의 △표준 협진 의뢰 및 회신지 작성 등이며,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으면 된다.

성형외과 홍기용 교수, 대한성형외과학회 우수논문 수상자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성형외과 홍기용 교수가 최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제75차 대한성형외과학회 국제 학술대회 (PRS Korea 2017)에서 재건 분야 우수논문발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발표 논문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지방종에 대한 특성: 수술적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 (Characterization of two distinct lipomas: a comparative analysis from surgical perspective)’으로 지방종을 피막의 존재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지방종에서 추출한 지방 줄기세포에 대해 분석하여 두 지방종의 발생기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이다.

또, 이번 연구는 올해 10월, 북유럽 성형외과학회의 학술지인 ‘Journal of Plastic Surgery and Hand Surgery’에 온라인 판으로 게재된 바 있다.



신장내과 박재윤 교수, ‘만성 콩팥병’ 시민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장내과 박재윤 교수는 지난 16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만성 콩팥병’을 주제로 질환의 심각성과 예방관리요령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만성 콩팥병이란 콩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역할 능력이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과거 만성신부전이기도 하다.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체내 수분, 칼슘 및 인, 산 염기 조절 기능에 이상이 오며 고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혈당 및 고혈압 조절이 안 되면 신장합병증 위험이 높고 병의 진행 또한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 콩팥병 질환자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콩팥기능 상실 위험이 높아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윤 교수는 “신장 합병증에 대한 예방은 평소 정상 혈당 유지와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금연과 금주를 해야 하며 최소 년 1회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더 best practice 더 best CS 병동 간호팀 Know-how 공유의 장’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동 간호팀은 지난 16일 간호사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 best practice 더 best CS 병동 간호팀 Know-how 공유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암환자 교육 코디네이터 이운경 간호사는 ‘암환자 간호’를 주제로 △항암제 부작용 및 부작용 관리 △항암치료 반응 평가 등 환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이어, ‘간호사를 위한 간 경변 환자 관리’를 주제로 소화기내과 고문수 교수가 기본 병태생리, 간질환 환자의 특징, 합병증, 복막염 증상 및 치료, 간암 환자의 치료 등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이후, 병동 간호팀은 ‘Hope day’ 행사를 진행하며, 부서원 간 상호 교류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간호사는 “주 부서가 아니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강의로 향후 환자 간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스마트 Tip<sup>+</sup>

2017년 연말정산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의료비 세액 공제

하나. 난임 시술 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길 것

2017년부터 난임 시술 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 시술 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 시술 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둘. 안경,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안경(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